

(문제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

- ①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 ②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③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④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문제1)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

①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X) → **취소**(取消)

1)지연(遲延): 遲(더딜 지/늦을 지) 延(늘일 연)

a)의미: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 늦지인하다

◆ 지연(遲延)하다는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어색하다. 따라서 취소(取消)로 바꾸면 좋을 듯하다. < '지연하다'는 '협상을 지연하다 /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지연하고 있다./ 이 문제가 시간을 지연한다고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으로 쓰인다. >

2)**취소**(取消): 取(가질 취) 消(사라질 소). 발음: [취:소] (긴소리)

a)의미: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무름'으로 순화.

☺영보이 행정법 plus

◆ 취소(取消):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철회(撤回):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X) → **연기**(延期)되었다

◆ 시험 날짜는 원래 정해진 것이므로 '9월 5일에서 9월 7일로'연장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 해야 옳다. 연장(延長)은 '버스 노선이 연장되다 /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등으로 쓰인다.

1)연장(延長): 延(늘일 연) 長(길 장/어른 장)

a)의미: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

2)**연기**(延期): 延(늘일 연) 期(기약할 기)

a)의미: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림.

◆ '날짜 연기(연기), 시험 연기(연기)'처럼 연기(연기)는 '延(늘일 연) 期(기약할 기)'를 쓰는데, '延(늘일 연)'에는 '초(길게 걸을 인)'이 들어가고 '期(기약할 기)'에는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길게 걸으며(久: 길게 걸을 인) 달(月: 달 월)까지 가려면 수억 년은 날짜 延期(연기)를 해야 할 것이다.

*유의어 < 연기 >

1)煙氣(연기): 煙(연기 연) 氣(기운 기)

a)의미: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b)예: 담배 연기(煙氣)

◆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을 의미하는 煙氣(연기)는 '煙(연기 연) 氣(기운 기)'를 쓰는데, '煙(연기 연)'에는 '土(흙 토)'가 들어가고 '氣(기운 기)'에는 '米(쌀 미)'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임오군란 때 흙(土: 흙 토)과 쌀(米: 쌀 미)이 섞인 밥을 먹은 군인들은 화가 나서 담배 煙氣(연기)를 마구 내뿜었다. < cf. 임오군란(1882.6月) >

< 임오군란(1882.6): 조선 고종 19년(1882)인 임오년에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밀린 급료에 불만을 품고 군제 개혁에 반대하며 일으킨 난리, 이를 계기로 다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청나라에 압송되었으며, 조정은 일본과 濟物浦 조약(1882.7月)을 맺게 되었다. >

2)演技(연기): 演(펼 연) 技(재주 기). 발음: [연:기](긴소리)

a)의미: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 내는 일.

◆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표현해 내는 일'을 의미하는 演技(연기)는 '演(펼 연) 技(재주 기)'를 쓰는데, '演(펼 연)'에는 '彳(물 수)'가 들어가고 '技(재주 기)'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컵이 없어 배우들은 물(彳: 물 수)을 손(扌: 손 수)으로 먹는 모습을 演技(연기)하였다.

②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1)타락(墮落): 墮(떨어질 타) 落(떨어질 락). 발음: [타:락](긴소리).

a)의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b)영어사전: depravity(타락, 부패(腐敗)), corrupt(부패한, 타락한), decadent(타락한, 퇴폐(頹廢)적인) < decay(부패하다, 썩다) >

◆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의미하는 墮落(타락)은 '墮(떨어질 타)'를 쓴다. 또한 '墮(떨어질 타)'는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월요일(月: 달 월)부터 착실(着實)히 공부하고 墮落(타락)하지 않겠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2)몰락(沒落): 沒(빠질 몰) 落(떨어질 락(낙))

a)의미: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 /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짐.

◆ 몰락(沒落)은 '沒(빠질 몰) 落(떨어질 락(낙))'을 쓰는데, '沒(빠질 몰)'에는 '彳(물 수)'가 들어가고 '落(떨어질 락(낙))'에는 '艹(풀 초)'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산삼을 흔한 풀(艹: 풀 초)처럼 물(彳: 물 수) 쓰듯이 마구 쓰면 집안이 沒落(몰락)한다.

③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1)근본(根本): 根(뿌리 근) 本(근본 본)

a)의미: 초목의 뿌리. /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 근본(根本)은 ‘根(뿌리 근) 本(근본 본)’을 쓰는데, ‘根(뿌리 근)’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는 **根本**(근본)이 미천하더라도 **나무**(木: 나무 목)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다. 아이, 착하다. ~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根幹(근간): 根(뿌리 근) 幹(줄기 간, 주관할 관, 우물 난간 한)

1)의미: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 根幹(근간)은 ‘根(뿌리 근) 幹(줄기 간, 주관할 관, 우물 난간 한)’을 쓰는데, ‘根(뿌리 근)’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가고 幹(줄기 간)’에는 ‘干(방패 간)’이 들어간다. < ‘간’은 刊(책 펴낼 간), 肝(간 간), 奸(범할 간), 杆(나무이름 간) 등이 아니라 ‘幹(줄기 간)’이 옳다. >

☺영보이 암기tip) 고구려의 **根幹**(근간) 사업은 **나무**(木: 나무 목)로 만든 **방패**(干: 방패 간)를 수출하는 것이었다.

④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 부사

1)今方(금방): 今(이제 금) 方(모 방/본뜰 방, 괴물 망)

a)의미: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명사

1)方今(방금): 方(모 방/본뜰 방, 괴물 망) 今(이제 금)

a)의미: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

(문제 1) 정답: ①

(문제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2)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문제 2)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2)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물어 보았다(O) / 물어보았다(O) < 본용언(물어)과 보조용언(보았다)이 결합할 경우 띄어 쓰임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

◆ 물어도 보았다(O) / 물어도보았다(X) <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도)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같이’는 체언 뒤에 쓰일 경우 조사가 되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성과 이름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므로 김V선생이라 띄어 쓴다. / ‘그만두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X) → **안되어도**

◆ 안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를 뜻하는 동사이자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중'의 경우 위 문장에서는 '여럿의 가운데'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영웅V중의 영웅/유엔 가맹 국가V중 20개국 대표가 워싱턴에 모였다./너희V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 '지난주'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이번 주'는 명사구이므로 띄어 쓴다. (문제 2) 정답: ③

(문제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3)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문제 3)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3)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주체 높임법 >
 -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주체 높임법 >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청자 높임법 >
 -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청자 높임법 >
 -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청자 높임법 >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특수한 어휘 >
 -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특수한 어휘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X) → 'ㄷ'은 객체 높임법이 아니라 상대 높임법(청자 높임법)이다.

-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상대 높임법(청자 높임법)** >
- ◆ 상대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을 높여

표현한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객체 높임법 >

(문제 3) 정답: ④

(문제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4)

- ①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②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③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④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문제 4)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4)

①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관형사) - ‘이’가 사과를 수식하므로 ‘이’는 관형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대명사) - ‘이’가 조사(보다)와 결합하였으므로 ‘이’는 대명사

②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부사) - ‘비교적’이 문장(교통이 편리한)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부사) - 비교적’이 형용사(낮은)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 비교적인 관점 - ‘비교적’이 조사(인)와 결합할 경우에는 명사이다.

◆ 비교적 관점, 비교적 연구 - ‘비교적’이 단독으로 명사(관점, 연구)를 수식할 때에는 관형사이다.

③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의존 명사) - ‘대로’가 용언(도착하는)과 결합할 경우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조사) - ‘대로’가 명사(것)와 결합할 경우 조사이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 ‘것’은 의존 명사로 쓰였다. >

④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명사) - 잘못이 조사(입니다)와 결합할 경우 명사이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부사) - 잘못이 동사(적용하여)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문제 4) 정답: ②

(문제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5)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厝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겉만 그럴듯해서이다.

(문제 18)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9급 마책형 문5)

- ① 그는 이번 실패로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O)

1)捲土重來(권토중래): 捲(말 권) 土(흙 토) 重(거듭 중) 來(올 래).

a)의미: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失敗)하였으나 힘을 회복(回復)하여 다시 쳐들어움을 이르는 말.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X)

1)魚魯不辨(어로불변): 魚(물고기 어) 魯(노둔할 로(노)) 不(아닐 불) 辨(분별할 변).

a)의미: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의어 < 속맥불변, 목불식정, 일자무식 >

1)菽麥不辨(속맥불변): 菽(콩 속) 麥(보리 맥) 不(아닐 불) 辨(분별할 변).

a)의미: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을 이르는 말.

2)目不識丁(목불식정): 目(눈 목) 不(아닐 불) 識(알 식) 丁(고무래 정/장정 정).

a)의미: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b)영어사전: ignorant(무지한, 무학의, 무식한), unlettered(배우지 못한, 무학의, 문맹의), illiterate(무식한, 문맹의)

3)一字無識(일자무식): 一(한 일) 字(글자 자) 無(없을 무) 識(알 식).

a)의미: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魚魯不辨(어로불변)은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무식한 사람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말은 모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영보이 행정법plus

◆ 공법상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란 말은 ‘무효’를 뜻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 부당이득의 예: 조세의 과오납,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 국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국가의 착오에 의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 사인의 국유지 무단사용, 공무원이 봉급을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무자격자의 연금 수령

등)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忝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O)

1) 忝不關焉(오불관언): 忝(나 오, 친하지 않을 어, 땅 이름 아) 不(아닐 불, 아닐 부) 關(관계할 관, 당길 완) 焉(어찌 언, 오랑개 이)

a)의미: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유의어**

1) 袖手傍觀(수수방관): 袖(소매 수) 手(손 수) 傍(곁 방) 觀(볼 관)

a)의미: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내버려 둠’, ‘보고만 있음’으로 순화.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겉만 그럴듯해서이다. (O)

1) 羊頭狗肉(양두구육): 羊(양 양) 頭(머리 두) 狗(개 구) 肉(고기 육, 둘레 유)

a)의미: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면종복배, 표리부동, 양봉음위, 양질호피, 권상요목, 사이비, 구밀복검 >**

1) 面從腹背(면종복배): 面(낮 면/밀가루 면) 從(좃을 종) 腹(배 복) 背(등 배/배반할 배)

a)의미: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b)영어단어: treacherous obedience(배반적인 복종)

2) 表裏不同(표리부동): 表(겉 표/시계 표) 裏(속 리(이)) 不(아니 부) 同(한가지 동).

a)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b)영어사전: treacherous(불충한, 불성실한, 배반하는)

3) 陽奉陰違(양봉음위): 陽(별 양) 奉(받들 봉) 陰(그늘 음, 침묵할 암) 違(어긋날 위)

a)의미: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4) 羊質虎皮(양질호피): 羊(양 양) 質(바탕 질, 펄백 지) 虎(범 호) 皮(가죽 피)

a)의미: 속은 양이고 거죽은 범이라는 뜻으로, 본바탕은 아름답지 아니하면서 겉모양만 꾸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勸上搖木(권상요목): 勸(권할 권) 上(위 상) 搖(흔들 요) 木(나무 목)

a)의미: 나무에 오르게 하고 흔든다는 뜻으로, 남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도록 방해함.

6) 似而非(사이비): 似(닮을 사) 而(말 이을 이) 非(아닐 비). 발음: [사:이-비](긴 소리).

a)의미: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b)사사이비(似是而非): 似(닮을 사) 是(이 시/옳을 시) 而(말 이을 이) 非(아닐 비)

7) 口蜜腹劍(구밀복검): 口(입 구) 蜜(꿀 밀) 腹(배 복) 劍(칼 검)

a)의미: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 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문제 18) 정답: ②

(문제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6)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작을 못 했다. 밖에 볼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 6)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6)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 역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로 보아 역설을 사용하였다.

◆ 예시: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로 보아 난초로 예를 들고 있다.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X) → 이 글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스님의 수필로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X) → 난초를 의인화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의인화(擬人化):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기어 표현함.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X) → 단호한 어조가 아니라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문제 6) 정답: ①

(문제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7)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 ①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흐으니 넷 물이 이실쏜야
人傑도 물과 갓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 ②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③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러 예어 가논고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랴 헛더면 가랴마는 제 구뵤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헛노라

(문제 7)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7)

- ①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 산은 옛 산이지만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
晝夜에 흘으니 넷 물이 이실쏜야 < 밤낮으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쏜야, >
人傑도 물과 굿으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 인걸도 물과 같아 가면 아니 오노매라, >

- ②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
春風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헛다가 >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정든 임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퍼리라, >
- ◆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
 - ◆ 시간적 개념(冬至스들 기나긴 밤)
 - ◆ 공간적 개념(春風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 ③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임의 정이로다 >
綠水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하겠는가, >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러 예어 가논고 <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올라가는구나, >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 아야, 내가 한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
이시랴 헛더면 가랴마는 제 구뵤여 < 있으라고 말했더라면 가겠냐마는 제가 구태여 >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헛노라 <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문제 7) 정답: ②

(문제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 8)

- ① 나뭇잎이 노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문제 8)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8)

◆ ‘러’불규칙: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 ‘-어’가 ‘-러’로 변하는 현상 < 누르다,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푸르다 >

◆ ‘르’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르’가 ‘-아’나 ‘-어’ 앞에서 ‘르르’로 바뀌는 현상. < ‘부르다, 오르다, 타고르다’, ‘그르다, 무르다, 이르다(무엇이라고 말하다)’ >

① 나뭇잎이 노르니 가을이 왔다. (‘러’불규칙)

1)누르다: 활용 - 누르러, 누르니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르’불규칙)

1)오르다: 활용 - 올라, 오르니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러’불규칙)

1)이르다: 활용 - 이르러, 이르니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르’불규칙)

1)구르다: 활용 - 굴러, 구르니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르’불규칙)

1)휘두르다: 활용 - 휘둘러(르르), 휘두르니

머리를 짧게 자르다. (‘르’불규칙)

1)자르다: 활용 - 잘라(르르), 자르니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르다. (‘르’불규칙)

1)부르다: 활용 - 불러, 부르니

색깔이 아주 푸르다. (‘러’불규칙)

1)푸르다: 활용 - 푸르러, 푸르니

(문제 8) 정답: ③

(문제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9)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 하려고 했다.

(문제 9)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9)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O)
 ◆ 첫째 단락에서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로 보아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O)
 ◆ 둘째 단락에서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로 보아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O)
 ◆ 셋째 단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 하려고 했다. (X)
 ◆ 넷째 단락에서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로 보아 재평가가 아니라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 재평가(再評價): 다시 평가함. 또는 그런 평가.
 ◆ 재구성(再構成):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

(문제 9) 정답: ④

(문제 10)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0)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① 論議 | 論據 | 論駁 | 論題 |
| ② 論議 | 論制 | 論遽 | 論搏 |
| ③ 論意 | 論旨 | 論難 | 論述 |
| ④ 論意 | 論志 | 論據 | 論題 |

(문제 10)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0)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說得)하는 (㉠論議(논의)) 형태이다. 찬성자(贊成者)와 반대자(反對者)는 각기 (㉡論據(논거))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批判)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認定)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論駁(논박))의 여지(餘地)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論題(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收集) 및 정보 검토(檢討)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分明)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研究)하는 것이 필요하다.

㉠ 論議(논의):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議(의논할 의)

1)의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 論議(논의)는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議(의논할 의)’를 쓰는데, 두 한자 모두 ‘흠(말씀 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論議(논의)가 활발하여 어른들의 **말씀**(言: 말씀 언)이 끊이지 않는다.

*동음이의어

1)論意(논의):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意(뜻 의)

a)의미: 논하는 말이나 글의 뜻이나 의도.

b)예: 이 글은 論意(논의)를 알 수 없다.

◆ ‘논하는 말이나 글의 뜻이나 의도’를 가리키는 論意(논의)는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意(뜻 의)’를 쓰는데, ‘意(뜻 의)’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당신이 어떤 **마음**(心: 마음 심)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 글의 論意(논의)를 도저히 모르겠다.

論據(논거):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據(의거할 거)

1)의미: 어떤 이론(理論)이나 논리(論理), 논설(論說) 따위의 근거.

◆ ‘論據(논거)’는 ‘據(의거할 거)’를 쓰는데, ‘據(의거할 거)’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명백한 論據(논거)를 제시(提示)할 수 있는 사람은 **손**(扌: 손 수)을 들어 말씀해 주세요.

論駁(논박):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駁(얼룩말 박)

1)의미: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論駁(논박)’은 ‘駁(얼룩말 박)’을 쓰는데, ‘駁(얼룩말 박)’에는 ‘馬(말 마)’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젊은 학자들의 새로운 주장은 밖에서 당근을 먹던 **말**(馬: 말 마)들에게도 論駁(논박)의 대상(對象)이 될 것이다.

論題(논제): 論(논할 논(론), 조리 윤(륜)) 題(표제 제)

1)의미: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 ‘論題(논제)’는 ‘題(표제 제)’를 쓰는데, ‘題(표제 제)’에는 ‘頁(머리 혈)’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오늘 우리가 토론(討論)할 論題(논제)는 **머리**(頁: 머리 혈)에 나쁜 영향(影響)을 주는 환경(環境) 오염(汚染)이다.

(문제 10) 정답: ㉠

(문제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 11)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 ②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③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④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

(문제 11)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1)

- ◆ 홍보(弘報):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
- ◆ 대구(對句):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 지은 둘 이상의 글귀
- ◆ 비유적(比喩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 ① 공공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 ◆ 홍보(금연하면 건강을 지켜 준다.)는 있지만 대구나 비유적 표현은 없다.

②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O)

- ◆ 노약자에게 양보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홍보)
- ◆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대구)
-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긍정적 비유)

- ③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 대구(~를 ~ 는)는 있지만 홍보도 없고 긍정적 비유가 아니라 부정적 비유(고문 장치)이다.

- ④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
 - ◆ 대구가 아니라 단순한 열거이고 홍보(신호위반, 과속 운전을 하면 모든 것을 앗아 가니 하지 마라)는 있지만 비유는 없고 긍정적인 부분도 없다. (문제 11) 정답: ②

(문제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2)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문제 12)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2)

◆ 구개음화(口蓋音化):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

◆ 구개음(口蓋音): 혀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ㅊ’, ‘ㅊ’ 따위가 있다.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O)

◆ 해돋(ㄷ) + 이(ㅣ) → [해돋지](ㅈ)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O)

◆ 어법에 맞게 적는다. - 해돋이(O), 같이(O)

◆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해돋지(X), 가치(X)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O)

◆ 해(체언) + 돋(용언 ‘돋다’의 어간) + 이(접사 / 명사화 접미사 / 종속적 관계)

◆ 체언(體言):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어근(語根):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덮개’의 ‘덮-’, ‘어른스럽다’의 ‘어른’ 따위이다.

◆ 용언(用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눈다.

◆ 어간(語幹): 활용어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먹다’, ‘먹니’, ‘먹고’에서 ‘먹-’ 따위이다.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와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X) → 구개음화는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와야 하는데, ‘잔디, 버티다’는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의 형태소이다. 구개음화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 12)정답: ④

(문제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3)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문제 13)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3)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O)

◆ 채: ('-은/는 채로', '-은/는 채'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벽에 기대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그는 여전히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O) = 척

◆ 체: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 보고도 못 본 체 판전을 부리다/모르는 체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는 왜 하나? -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X) → 한창

◆ 한창: (부사)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 < 벼가 한창 무성하게 자란다./다방 안은 날씨가 좋지 못한 탓인지 한창 붐빔 시각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

◆ 한참: (명사)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 < 공사가 한참인 아파트/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참이다./대학가엔 축제가 한참이다. >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X) → 한참

◆ 한참: (부사) 어떤 일이 상당히 오래 일어나는 모양. < 한참 난투극이 벌어졌다. / 그들의 소문은 한참 굉장하였다. >

◆ 한참: (명사)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 한참 뒤/한참 동안 기다리다/그들은 폐허가 된 집터를 한참이나 둘러보았다./담장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기와집이 나왔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X) → 두텁다

◆ 두텁다: (형용사)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X) → 두껍다

◆ 두껍다: (형용사)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 어둠이나 안개, 그늘 따위가 짙다.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X) → 벗어졌다

◆ 벗어지다: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가다. / 누명이나 죄 따위가 없어지다. /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 / 피부나 거죽 따위가 깎이거나 일어나다. / 때나 기미 따위가 없어져 미끈하게 되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X) → 벗겨지지

◆ 벗겨지다: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 사실이 밝혀져 죄나 누명 따위에서 벗어나다.

(문제 13) 정답: ①

(문제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책형 문14)

①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②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③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④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제14)

◆ 파생어(派生語):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붙은 ‘덮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덧-’이 붙은 ‘덧버선’ 따위가 있다.

◆ 합성어(合成語):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①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O)

◆ 웃(실질 형태소) + 음(명사화 접미사) = 파생어

☺영보이 암기tip) 최불암 선생님은 파생어 공부를 하면서 **파** ~ 하고 **웃음**을 지으셨다.

< 파생어 공부할 때 파 ~ 웃음 >

②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O)

◆ 결(명사) + 눈(명사) → 결눈(명사 / 통사적 합성어)

+
질(접미사)

↓
결눈질(파생어)

☺영보이 암기tip) 배가 너무 고프 나머지 때운 **파**까지 우걱우걱 씹어 먹는 거지를 **결눈**질로 흘끔거렸다. 아니고 배고파. ㅏㅏ < 파 먹는 모습을 - 결눈질 >

③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X) → ‘회덮밥’은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회(명사/어근)

+

◆ 덮(은) + 밥 → 덮밥(관형사형 전성어미(은)이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회덮밥(합성어)

☺영보이 암기tip) 영보이가 옷통을 벗고 **덮밥**을 먹는 **합성**사진이 유포되었다. 아이고, 눈 버렸다. 안 본 눈 삽니다. < 덮밥을 먹는 - 합성사진 >

④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O)

◆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된 말. ‘하늘’, ‘땅’, ‘밥’ 따위이다.

(문제 14) 정답: ③

(문제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5)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문제 15)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제15)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O)
 ◆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로 보아 앞 문장은 긍정(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이지만 뒤 문장은 반대되는 내용(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이 왔으므로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다. 따라서 ‘그리고’를 ‘그러나’로 바꿔야 한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X)
 ◆ 주제는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을 보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삭제하면 안 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O)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번역 투이므로 우리말답게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O)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 돌아온다.’는 말은 어색하므로 ‘사실은 돌아온다는 것이다.’가 옳다.

(문제 15) 정답: ②

(문제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제 16)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문제 16)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제16)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O)
◆ ' ~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뿔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로 보아 무진의 안개를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안개를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O)
◆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로 보아 무진의 지역적 특징은 안개이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O)
◆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로 보아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다.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X) → 주관적

◆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로 보아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묘사한다.

(문제 16) 정답: ④

(문제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제 17)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 ②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③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④ 인간의 기억과 상상

(문제 17)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0)

- ①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X)

◆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를 보고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이라 해서는 안 된다. 단편적인 내용이라 글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다.

- ②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X)

◆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로 보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했지 위험성에 대해 말한 부분은 없다.

- ③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O)

◆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로 보아 독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그리고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로 보아 독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③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④ 인간의 기억과 상상 (X)

◆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를 보고 보기 ④를 정답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 상당히 단편적인 부분만 담고 있으므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없다.

(문제 17) 정답: ③

(문제 18)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8)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 | ㉡ | ㉢ |
| ①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이를테면 | 역시 | 결국 |

④ 다시 말해 만약 그런데

(문제 18)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8)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즉)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가령)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요컨대)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즉: (부사) 다시 말하여

◆ 앞 문장은 일반적인 진술이고 뒷 문장은 구체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즉’이나 ‘다시 말하면’이 어울린다.

◆ 앞 문장: 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일반적 진술

◆ 뒷 문장: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구체적 진술

㉡ 가령: 예를 들어. ‘이를테면’으로 순화.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로 보아 고구려를 예로 들어 진술하고 있다.

㉢ 요컨대: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요컨대)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로 보아 앞 문장을 요약하면서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다.

(문제 18) 정답: ㉠

(문제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 19)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문제 19)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0)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O)

◆ '울음이 타는 가을 강'으로 보아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 공감각적 이미지(시각의 청각화)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X)

◆ '저것 봐, 저것 봐'처럼 반복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는 아니다.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O)

◆ 물과 불의 대조적 속성을 지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 물 - 물소리, 울음, 바다, 가을 강, 눈물 등

◆ 불 - 가을 햇볕, 불빛, 해질녘 울음이 타는 등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O)

◆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로 보아 민요조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린다고 할 수 있다.

(문제 19) 정답: ②

(문제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 20)

길동이 “형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우(雨)’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

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 20) 정답 및 해설 (2017하반기 생활안전분야 9급 마책형 문10)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O)

◆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로 보아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O)

◆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로 보아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O)

◆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로 보아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X)

◆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로 보아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잡혀오는 모습을 풍우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 20) 정답: ④

- ◆ 해설 관련 문의: <http://blog.naver.com/youngboy0710>